

초간본 『霽亭集』의 서지적 분석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First Edition of *Je-jeong-jib*

남 권 희 (Nam, Kwon-Hee)*

권 오 덕 (Kwon, Oh-De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3 중간본 『제정집』의 체제 |
| 2. 조선전기 목판인쇄술과 출판문화사 | 4. 초간본 『霽亭集』 권2 분석 |
| 3. 『霽亭集』의 편찬과 간행 | 4.1 형태서지적 분석 |
| 3.1 이달충의 생애 | 4.2 본문 글자 대조 |
| 3.2 『제정집』의 간행과 전래 | 5. 맺음말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원주고판화박물관에 소장된 初刊本 『霽亭集』 권2에 대한 형태서지적 분석과 함께 초간본에 수록된 작품이 중간본(1836年刊)에서 어떻게 변개되는지에 대해 글자대조를 통하여 구명해 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초간본 권2에는 모두 25편의 詩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9편은 중간본 권1, 2, 3에 수록되어 있고, 『懶翁和尚語錄跋尾』와 『金提學薦妻七七疏』는 중간본에는 수록되지 않고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都巡問使上禮狀』, 『上皇后殿謝功臣號牋』, 『下允批省所上牋具悉』, 『大明謝恩表』는 초간본에만 수록된 것으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둘째, 중간본의 본문과 글자대조를 한 결과 글자 출입과 異體字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초간본의 『動齋說』·『懶翁和尚語錄跋尾』·『國行聖節日賀表』·『節日賀表』·『癸巳十月廿五日賀皇太子封冊箋』은 중간본 및 『동문선』의 내용보다 자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要語: 이달충, 제정집, 초간본, 춘천, 원주고판화박물관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kwon-1027@hanmail.net)

접수일: 2015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was for pondering upon both bibliographical analysis on #2 *Jeong-jeong-jib* (霽亭集) which is first edition housed in Museum Go-Pan-Hwa, and upon, by contrasting the letters, how it's changed from Jung-Gan-Bon, published in 1836. Thus we came to know below.

First, 25 poetry and proses are included in #2 Choganbon, 19 poetry and proses out of them are included in #1, #2 and #3 Jung-Gan-Bon. In addition, 『Na-Ong-Haw-Sang-Eo-Rok-Bal-MI(懶翁和尚語錄跋尾)』 and 『Gim-Je-Hak-Cheon-Che-Chil-So(金提學薦妻七七疏)』 are excluded in Jung-Gan-Bon but in *DongMunSeon* (東文選). Also 『Do-Sun-Mun-Sa-Sang-Lye-Jang(都巡問使上禮狀)』, 『Sang-Hwang-Hu-Cheon-Sa-Gong-Sin-Ho-Jeon(上皇后殿謝功臣號牋)』, 『Ha-Yun-Bi-Seong-So-Sang-Jeon-Gu-Sil(下允批省所上牋具悉)』, 『Dae-Myeong-Sa-Un-Pyo(大明謝恩表)』 are included in only first edition, which are not known to the public.

Second, having contrasted the letters of the body of Jung-Gan-Bon, it was fou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resulted from letter in-and-out and I-che-Ja(異體字). Furthermore 『Dong-Jae-Seol(動齋說)』, 『Na-Ong-Haw-Sang-Eo-Rok-Bal-MI(懶翁和尚語錄跋尾)』, 『Kuk-Haeng-Seong-Jeol-II-Ha-Pyo(國行聖節日賀表)』, 『Jeol-II-Ha-Pyo(節日賀表)』, 『Gyae-Sa-Sib-Wol-I-Sib-O-II-Ha-Hwang-Tae-Ja-Bong-Chaek-Jeon(癸巳十月廿五日賀皇太子封冊箋)』, which are under first edition, are confirmed to be more detailed than Jung-Gan-Bon and *DongMunSeon*.

Key words: I-dal-Chung, *Je-jeong-jib*, First edition, Chun-Cheon, Museum Go-Pan-Hwa in Won-Ju

1. 머리말

본 연구는 고려 말 문신 霽亭 李達衷(1309~1384)의 문집인 ‘『霽亭集』 권2 초간본’에 대하여 형태서지와 조선후기에 간행된 중간본과의 글자 대조를 통해 본문의 변개양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알려진 『제정집』의 간행본으로 실물이 전하는 것은 1836년 후손 李璧秀가 태백산 浮石寺에서 간행한 중간본과 이를 1918년 영주에서 간행한 후쇄본, 그리고 1939년에 원주에서 이순영 등이 간행한 연활자본, 1965년에 후손 이재길 등이 간행한 석인본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초간본 『제정집』 권2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고, 간행관련 기록만이 전하여서 초간 당시 尹淮(1380~1436)가 쓴 跋文이 『東文選』에¹⁾ 전하며 이의 實錄²⁾과 冊板目錄³⁾ 등에서 조선전기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간본과 책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제정 이달충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그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⁴⁾ 2013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문집번역총서로 중간본인 한국문집총간 3집 소재 『제정집』을 대본으로 하여 여타 개인문집과 『동문선』 등에 수록되어 있는 이달충의 작품을 교감·표점한 뒤 번역을 하였다.⁵⁾

1) 『東文選』 卷103 『霽亭先生李公達衷文集跋』.

2) 『中宗實錄』 1512년, 9월 6日(丁丑) 條.

3) 『攷事撮要』 1576년 乙亥字本 / 乙亥字醵刻本, 1585년 木板本 / 寫本

4) 제정 이달충과 그의 문집인 『제정집』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문식, “제정집 해제,”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 集部2(2003).

김동욱, “제정 이달충의 생애와 문학세계,” 『어문학연구』 4(1996).

김성언, “이달충의 삶과 시(其一)-생애와 서지,” 『한국한시연구』 3(1995).

김영미, “제정(霽亭) 이달충(李達衷) 산문의 서술방식 연구,” 『국어문학』 51(2011).

부은철, “霽亭 李達衷의 文學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5).

신용남, “제정집 해제,” 『한국문집총간해제』 1(199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정집 - 영남문집해제,”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4(1988).

이정자, 『제정공 이달충 문학』. 연구논문과 해설 번역 및 영인본. (서울: 국학자료원, 2006).

조문주, “霽亭 李達衷의 詩世界,”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5) 이달충 저, 안세현·안득용·서정화 역, 장희성 교집. 『제정집』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번역본 해제에서 안세현은 『제정집』의 간행과 구성 그리고 생애와 문학세계를 언급하면서 중간본 『제정집』에 수록된 작품의 원출처를 밝히고 원출처에 수록된 내용과 중간본의 수록내용에 대한 차이를 표로 제시하며, 향후에 이달충의 시문에 대하여 철저한 고증작업과 遺文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에 발굴된 원주고관화박물관 소장 초간본 『제정집』 권2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형태서지와 본문의 글자 대조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며, 아울러 조선전기 목판인쇄술과 출판문화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료에 나타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이달충의 생애와 『제정집』의 편찬 및 간행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였다.

2. 조선전기 목판인쇄술과 출판문화사

본 장에서는 조선전기 목판인쇄술과 출판문화사에 대하여 간단히 일별해보고자 한다. 한국에 있어서 목판인쇄술의 시작을 알린 통일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그리고 고려시대 初雕大藏經·教藏·再雕大藏經 및 儒家書의 간행은 판각기술과 종이 제작, 먹 제조 기술 등 인쇄술에 필요한 전반적인 여건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목판인쇄문화는 조선으로 이어져 서적의 출판과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은 건국초기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性理學 관련 서적의 편찬과 생산·보급 및 교육이 당면한 문제로 출판활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서를 바탕으로 하고, 의례·중국문학·병서·언어·음악·천문 역법·의학·농업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편찬사업이 유교적인 이상정치 구현이라는 목적아래 간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온 개인 문집의 편찬과 간행도 또한 계속되어서 鄭道傳의 『三峰集』(1397), 金九容의 『楊若齋學吟集』(1400), 世宗年間に 權近의

6) 이달충 저, 안세현·안득용·서정화 역(2013), 13-26.

『陽村集』 등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전기 주요 문집 간본이 약 70여종으로 파악된다.

<표 1> 조선전기 간행 문집7)

순번	서명(저자)	간행연도	순번	서명(저자)	간행연도
1	拙藁千百(崔澐)	1354	25	眞逸遺藁(成侃)	[序: 1467]
2	稼亭集(李穀)	1364(初刊)	26	杜律虞註	[跋: 1471]
3	雪谷集(鄭誦)	1376	27	擊壤集	[識: 1475]
4	惕若齋學吟集(金九容)	1400	28	格齋集(孫肇瑞)	1479
5	柳巷先生詩集(韓脩)	[跋: 1400]	29	靖節集	1483
6	牧隱集(李穡)	1404	30	太虛亭集(崔恒)	1486
7	遁村雜詠(李集)	1410(初刊)	31	朝鮮賦	[序: 1490]
8	圓齋藁(鄭樞)	1418	32	私淑齋集(姜希孟)	1492
9	春亭集(卞季良)	1422	33	佔畢齋集(金宗直)	[序: 1497]
10	稼亭集(李穀)	1422	34	青坡集(李陸)	[序: 1499]
11	陽村集(權近)	1426	35	四雨亭集(李滉)	[序: 1500]
12	圃隱集(鄭夢周)	1439	36	止止堂集(金孟性)	[序: 1501]
13	林祭酒百家衣詩集(林惟正)	1440	37	挹翠軒遺稿(朴闇)	1507
14	樊川文集(杜牧)	1440	38	濯纓集(金駟孫)	1512
15	陶隱集(李崇仁)	[跋: 1443]	39	顏樂堂集(金訥)	1516
16	復齋集(鄭摠)	1446	40	陶淵明集	1522
17	半山集 (匪懈堂選半山精華, 王安石)	1446	41	東槎集	1528
			42	杜工部詩批選	1528
18	宛陵梅先生詩選 (匪懈堂選, 梅堯臣)	1447	43	醫閭先生集	1529
			44	蓮軒雜稿(李宜茂)	[跋: 1530]
19	唐翰林李太白文集	1449	45	潘溪集(兪好仁)	[1530경]
20	泰齋集(柳方善)	[序: 1450]	46	三灘集(李承召)	1535
21	梅軒集(權遇)	1452	47	韓詩外傳	[跋: 1539]
22	獨谷集(成石璘)	[序: 1456]	48	簡齋集	1544
23	亨齋詩集(李稷)	1465	49	訥齋先生集(朴祥)	1547
24	三峰集(鄭道傳)	[跋: 1465]	50	冲庵集(金淨)	1549

7) <표>는 손계영의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제15호(2009), 237-238과 淸州古印刷博物館, 『朝鮮前期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438-44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순번	서명(저자)	간행연도	순번	서명(저자)	간행연도
51	駱賓王集	[序: 1552]	64	秋江集(南孝溫)	[跋: 1577]
52	月軒集(丁壽崗)	1553	65	錦南先生集(崔溥)	[跋: 1578]
53	默齋集(洪彥弼)	1561	66	長吟亭集(羅滉)	1578
54	武陵雜稿(周世鵬)	1564	67	梅花詩(李滉)	1578
55	晦齋集(李彥迪)	[序: 1574]	68	十省堂集(嚴昕)	1585
56	草堂集	[序: 1565]	69	溪山雜詠(李滉)	1585
57	養心堂集(趙晟)	1568	70	睡軒集(權五福)	[跋: 1585]
58	懶齋集(蔡壽)	1568	71	楞軒集(李石亨)	[跋: 1587]
59	陽谷集(蘇世讓)	1571	72	分類補註李太白詩	1588
60	漁村集(沈彥光)	1572	73	容齋集(李荇)	1589
61	石川詩集(林億齡)	1572	74	思齋集(金正國)	1591
62	慕齋集(金安國)	1574	75	愼村集	임란이전
63	大觀齋亂稿(沈義)	1577	76	東國李相國全集	임란이전

책의 장정형태도 15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하여 包背裝에서 線裝으로 변화되고 인쇄하는데 사용된 종이도 여러 종류가 사용되어 刊經都監의 경우는 藁精紙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글자의 서체도 고려시대에 많이 사용된 歐陽詢體를 벗어나 衛夫人字體를 쓰고 조선 사람의 글씨체를 본으로 하는 庚午字의 安平大君字體나 乙亥字의 姜希顔 서체, 乙酉字의 鄭蘭宗 서체, 甲辰字의 朴耕 서체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16세기에는 국가의 정치와 문물제도가 양반 관료에 의하여 주도됨에 따라 성리학 위주의 정치를 내세우는 사림파가 등장하여 성리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산군의 폭정으로 학문과 기록문화가 폐쇄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중종 때의 적극적인 서적정책으로 인해 서책 간행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쇄출판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으로 속에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 朱子學에 관한 저술과 각종 주석서⁸⁾와 『資治通鑑』, 『戰國策』, 『新增東國輿地勝

8) 조선시대 주자학 관련 저술 및 각종 주석서의 간행에 대해서는 최경훈의 “朝鮮前期 朱子著述의 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42집(2009), 453-48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覽』 등과 유교적 윤리 질서를 강조한 『소학』, 『이륜행실』, 『續三綱行實』 등이 간행되었다.

『주자대전』의 간행은 이제까지 『성리대전』을 중심으로 하던 조선 초기의 성리학이 보다 더욱 심화되고 발전하여 나아가 안정적인 유교국가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념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적의 편찬과 적극적 배포로 나타난 현상이고, 소학류의 간행은 중앙의 靜庵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한 도덕정치 실현과 향촌의 질서 구축을 위한 성리학의 적극적 보급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선전기의 서적 출판과 간행은 역대 국왕의 관심과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이는 건국과 동시에 대두된 ‘왕권 강화의 필요성’,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이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한 것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3. 『霽亭集』의 편찬과 간행

3.1 이달충의 생애

『제정집』의 편찬과 간행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달충의 생애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달충은 본관이 慶州로 僉議參理 李穡(1274~1349)과 延昌郡夫人 朴氏 사이에서 1309년(충선왕 1)에 셋째아들로 태어났는데,⁹⁾ 초명이 達中이었으나 공민왕의 명에 따라 ‘中’을 ‘衷’으로 고쳤다. 자는 止中·仲權이고 호는 霽亭이며 楊若齋 金九容과 교유하였다.

그의 관직은 1326년(충숙왕 13) 18세에 급제한 뒤 史翰, 正言을 거쳐 成均祭酒에 이르렀고 1348년(충목왕 4)에는 吏部都監判事, 1358년(공민왕 7)에 戶部尙書로서 東北面兵馬使가 되었다. 이달충은 동북면 병마사의 직임을 끝내고 돌아올 때 당시 朔方道 萬戶인 李子春(太祖 李成桂의 부)으로부터 鶴仙亭에서 전별연

9) 益齋 李齊賢이 그의 堂叔이다.

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성계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훗날 자신의 자손들을 부탁하였다.¹⁰⁾ 이후 1367년(공민왕 16)에 鷄林 府尹을 지내고 1385년(우왕 11) 8월 18일 76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시호는 文靖이고, 부인은 橫城趙氏(政堂文學 趙文瑾의 女)인데 그 사이에서 4남 4녀를 두었다.

<표 2> 이달충의 생애와 간행본 연표

연도	나이	기사
1309(충숙왕 1)	1	出生
1326(충숙왕 13)	18	及第, 史翰을 거쳐 正言이 됨. 관직이 成均祭酒에 이름
1348(충목왕 4)	40	吏部都監判事가 됨
1349(충정왕 1)	41	父親喪
1352(공민왕 1)	44	典理判書가 됨
1352(공민왕 2)	45	監察御史가 됨
1358(공민왕 7)	50	戶部尙書로서 동북면병마사가 됨
1366(공민왕 15)	58	密直提學에 擢拜됨. 辛晫이 주색을 좋아하고 비판하였다가, 신돈의 中傷으로 柳淑 등과 貶職 됨
1367(공민왕 16)	59	鷄林府尹이 됨 『辭鷄林尹表』·『鷄林赴任後再辭表』를 지음
1385(우왕 11)	76	8월 18일 卒, '文靖'의 시호를 받음
세종연간(1419-1450)		손자 李寧商이 춘천에서 초간본 간행
1836(헌종 2)		후손 李璧秀 등이 태백산 浮石寺에서 중간본(4권 1책) 간행
1919		영주에서 후손 李能護가 중간본 후쇄
1936		원주에서 李舜榮 등이 연활자로 간행(4권 1책)
1965		후손인 李宰吉 등이 석인본(2권 1책) 간행

10)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여 즉위한 뒤 지난 일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이달충의 자손의 이름에 '호'자를 쓰도록 하였다.

3.2 『제정집』의 간행과 전래

이달충이 생전에 남긴 저술에 대한 기록으로 『高麗史』와 『中宗實錄』 그리고 『동문선』에 尹淮(1380~1436)가 쓴 跋文이 있는데 이를 통해 초간본이 당시에 유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은 관련 기록이다.

- ① 『고려사』, 「李達衷列傳」: … 『제정집』이 세상에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② 『중종실록』¹¹⁾: 弘文館에서 本館이 간직하고 있는 『東人詩集』·『四佳集』·『保閑集』·『應製詩』·『樗軒集』·『太虛亭集』·『陽村集』·『稼亭集』·『及菴集』·『雪谷集』·『霽亭集』·『楊若齋集』·『關東瓦注集』·『柳巷集』·『義谷集』·『復齋集』·『益齋亂藁』·『圓齋集』·『栗亭集』·『李相國集』·『獨谷集』·『春亭集』·『雙梅堂集』·『桂苑筆耕』·『牧隱集』·『拭疣集』·『陶隱集』·『晉山世藁』 등의 문집을 바쳤다.
- ③ 『동문선』, 「霽亭先生李公達衷文集跋」¹²⁾: … 이제 그 손자들이 귀하게 간직한 遺稿를 써게 하지 않을 것을 꾀하여, 당세에 전포하고 후세에 행하게 할 것을 생각하던 차에, 마침 司憲府 監察 寧商이 강원도 관찰도사가 되어 춘 천도호부에서 이를 刊行하고, 나에게 발문을 부탁하였다.

위 기록 등을 참고해 볼 때 이달충의 문집인 『제정집』은 세종연간(1419~1450)에 그의 손자 李寧商이 春川에서 처음 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종실록』의 기사내용과 1576년과 1585년에 간행된 乙亥字本 및 木板本 『攷事撮要』 책판목록을 통해서도 춘천에 縣官箴, 詳明算, 得效方, 讀書法, 日記, 小學을 비롯하여 『霽亭集』의 책판이 소장되어 전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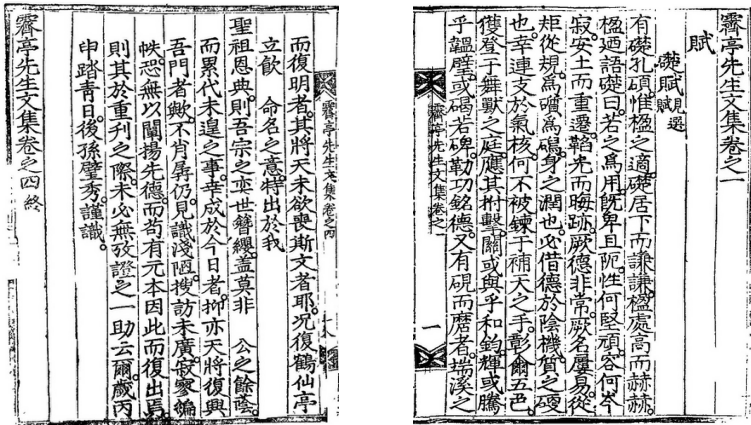
하지만 1700년경에 필사된 책판목록인 『古冊板有處古』를 보면 춘천에 ‘小學 諺解 板一秩’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제정집』의 책판이 일실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손자에 의해 간행되었던 초간본도 兵火로 인해 중간(1836年刊)할 당시 세상에 유전되지 않음을¹³⁾ 李仁行(1758~1833)이 언급하였다.

11) 『中宗實錄』 1512년, 9월 6日(丁丑) 條.

12) 권103.

13) 李仁行, 「霽亭先生文集序」.

한편 초간본 『제정집』의 일실로 인해 『제정집』이 다시 중간된 것은 조선후기 그의 후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承宣公 李德培(1598~?)¹⁴⁾가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靑丘風雅』 등에서 遺文을 모아 한 질을 淨寫한 다음 原本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¹⁵⁾ 중간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 1834년 李世煜과 李應韶가 이덕배의 뜻을 이어서 문집을 간행하기로 하고 李璧秀(1801~?)에게 이덕배의 淨寫本을 전하여 改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벽수는 宗中の 李祐新, 李喆新 형제와 더불어 選集인 『동문선』·『청구풍아』 등에서 이덕배가 놓친 시문을 보완하고, 이달충과 관련된 사적을 『鷄林世家』와 『高麗史纂要』 등을 참고하여 부록으로 붙여¹⁶⁾ 1836년(헌종 2)에 태백산 浮石寺에서 4권 1책으로 중간¹⁷⁾하게 된다. 현재 이 중간본은 고려대학교 만송문고(D1-A284B)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문집총간 3집에 영인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권말

권수

<그림 1> 중간본 『제정집』

14) 자는 厚哉이고 1639년(인조 17) 式年試 丙科 6등으로 급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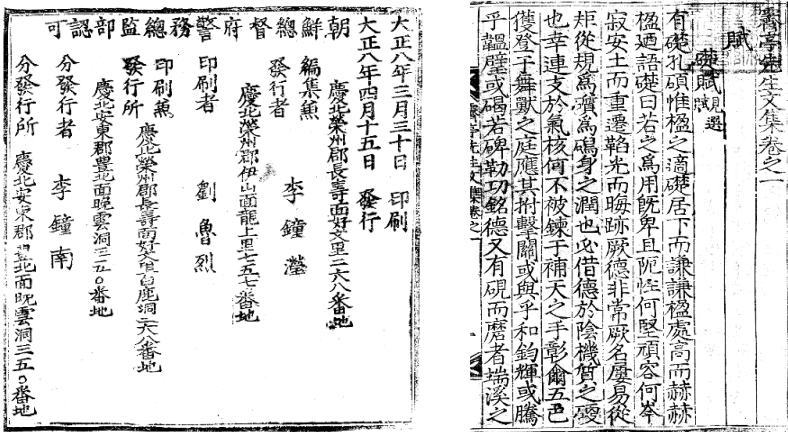
15) 이인행, 『霽亭集序』.

16) 이벽수, 『霽亭集跋』.

17) 중간본의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10行 20字이다.

중간본은 권1 詩, 권2~3 文, 권4 附錄으로 구성되었는데, 권수에는 1832년에 지은 新野 李仁行의 序文과 目錄이 실려 있다. 서문에서는 초간본의 散佚로 인해 후손 李德培가 유문을 수집하여 정사한 사실과 이후 李宗梓의 도움을 얻어 문집을 간행한 경위를 밝히고 있다.

한편 중간본의 후쇄본이 1919년 경북 영주에서 후손 李能護에 의해서 간행된다. 이 후쇄본에는 張錫英과 이능호가 1918년에 쓴 서문과 발문이 있는데, 현재 그 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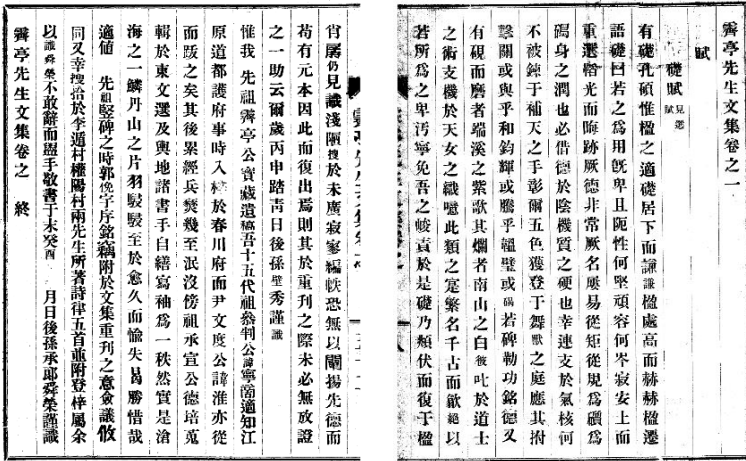


권말 간기

권수

<그림 2> 후쇄본

또한 근대에 들어 1939년 강원도 원주에서 鉛活字를 이용하여 李舜榮 등이 4권 1책으로 간행을 한다. 그 구성을 보면 권1-3은 중간본과 동일하지만, 권4의 부록에서 郭鍾錫이 쓴 「神道碑銘」과 권말에 이순영이 1933년(癸酉)에 쓴 발문이 추가되어 있다.



권말

권수

<그림 3> 鉛活字本

1965년에는 석인본 2권 1책이 후손인 李宰吉 등에 의해 간행이 이루어진다. 이 석인본은 기존에 간행된 중간본과 연활자본의 권1·2를 권1에, 권3·4를 권2로 편집하였다. 그리고 중간본과 연활자본에 수록되어 있던 『제정집』의 서문 및 발문을 모두 제외하고 초간본 발문(윤희)과 1965년에 쓴 이재길의 발문만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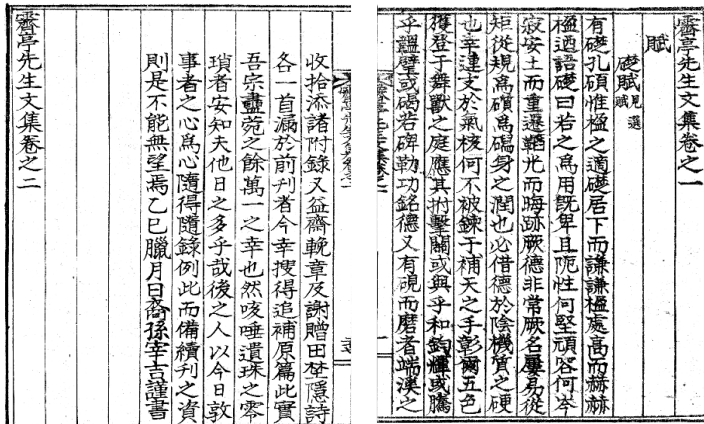
3.3 중간본 『제정집』의 체제

1836년 간행된 중간본의 체제와 그 수록 내용을 보면 권1에는 賦 2편과 35題 52首의 詩¹⁸⁾가 실려 있는데, 주로 閑居·紀行詩가 대부분이다. 권2에는 表文 7편, 箴 2편, 銘 1편이 실려 있다. 여기서 表는 辭職表와 賀節表 등으로 모두

18) 시들은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청구풍아』 등에 기록되어 있는 시를 모은 것으로, 인용서에 대해 출전을 밝히고 있다. 권1-3의 시문 출처의 현황에 대해서는 안세현·안득용·서정화 역, 장희성 교점, 『제정집』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20-24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으며, 箴으로는 「愛惡箴」과 교분이 두터웠던 金九容에게 써준 「惕若齋箴」이 실려 있다. 권3에는 全州牧使 韓系祥에게 준 「觀風樓記」와 關東의 存撫使로 가는 白文寶(1303~1374)의 청으로 써준 「動齋說」, 김구용의 詩卷 발문인 「題金安廉詩卷後跋」 및 祭文과 墓誌銘이 실려 있고, 그 외에 서문 2편, 제문과 묘지명 각 1편이 실려 있다. 부록인 권4는 1753년에 淸臺 權相一이 지은 行狀, 『고려사』 「李達夷列傳」, 그리고 舊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이제현, 정몽주의 시와 『東史纂要』, 『계림세가』 등에서 이달충과 관계된 기록을 뽑아 모은 ‘追錄’이 실려 있다. 이 추록에는 尹淮가 지은 초간본의 跋文이 포함되어 있다. 권말에는 1836년에 朴時源과 후손 이종재·이벽수가 쓴 跋文이 실려 있다.

1965년에 간행된 석인본에는 이전 간행본의 부록에 수록된 권상일이 쓴 행장과 『동사찬요』, 『동경잡기』에 나오는 이달충의 사적 기록이 제외되고, 白文寶의 문집인 『壘隱逸稿』 권4에 수록된 이달충의 「謝田元帥送倭酒」라는 시와 곽중석이 지은 神道碑銘 및 李集(4수), 이색(6수), 권근(1수) 등이 이달충에게 보낸 시편 그리고 『東國通鑑』에 이달충과 관련된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권말

권수

<그림 4> 석인본(1965)

4. 초간본 『霽亭集』 권2 분석

4.1 형태서지적 분석

초간본 『제정집』 권2는 조선 세종연간에 그 손자인 江原都事 李寧商에 의하여 春川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그동안 초간본의 간행 사실은 『동문선』 권103에 수록된 윤희의 발문과 『중종실록』의 기사내용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고사촬요』 책판목록의 기록으로만 알려졌는데 원주고판화박물관에서 초간본 『제정집』 권2가 발굴됨에 따라 초간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초간본의 서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권수면



표지

<그림 5> 초간본 『제정집』

- 권수제: 霽亭文集卷之二 / 권말제: 霽亭文集卷之二 終
- 판 사 향: 木板本
- 발행사항: 世宗年間

- 형태사항: 1册(零本). 四周雙邊, 有界, 半廓 15.9×12.5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10行 17字 ; 21.5×16.0cm
- 색차 값¹⁹⁾: L 61.2 a+ 6.6 b+ 21.1(1장 앞면 상단)
 L 58.5 a+ 4.7 b+ 17.2(1장 앞면 하단)
 L 71.7 a+ 5.1 b+ 20.0(17장 뒷면 상단)
 L 65.7 a+ 4.7 b+ 18.4(17장 뒷면 하단)
 L 67.1 a+ 5.7 b+ 19.1(33장 앞면 상단)
 L 63.4 a+ 4.2 b+ 17.9(33장 앞면 하단)
- 지질두께: 0.10mm(1장 상단) / 발폭: 2.8cm / 축수: 13-14축

초간본의 책의 크기는 세로 21.5cm, 가로 16.0cm고 장정형태는 5針眼 線裝本이다. 표지는 원표지가 아니라 근대에 개장되었고, 제책체는 목서로 사각선을 치고 ‘霽亭集’이 쓰여 있는데 크기가 세로 11.8cm, 가로 4.5cm이다.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에 계선이 있고 본문은 10행 17자로 이루어져 있다. 半廓의 크기는 세로 15.9cm, 가로 12.5cm며 版心에는 大黑口 및 上下內向黑魚尾 그리고 版心題인 ‘霽亭集卷二’와 ‘張次’가 보인다. 장수는 모두 33장인데, 7장 뒷면 1-7행 일부가 유실되어 있다. 권수제 아래에 저자사항인 ‘高麗李達衷’이 목서되어 있고, 卷末題는 ‘霽亭文集卷之二 終’²⁰⁾이다.

초간본 권2에 수록된 시문은 중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懶翁和尚語錄跋尾』와 『金提學薦妻七七疏』를 포함하여 모두 2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은 초간본 권2의 수록 시문이 중간본의 어느 권차에 수록되어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초간본에 수록된 시문 25편을 1836년 간행된 중간본과 비교해본 결과 중간본의 권1, 2, 3에 나누어져 19편이 수록되어 있고, 중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6편 가운데 초간본과 『동문선』에서 확인되는 『나옹화상어록발미』와 『김제학천치칠칠소』 2편은 중간본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간할 당시 후손들이 불교 관련 내용으로 인해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4편은 초간본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¹⁾

19) L(100~0)값은 明暗을 나타내고, a+는 Red의 정도를 b+는 Yellow의 정도를 나타낸다.

20) 초간본은 ‘卷之二 終’으로 되어 있어 중간본(4권 1책)의 구성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21) 초간본에만 수록된 4편의 글에 대해서는 차후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록 1]에 원문을 제시하였다.

<표 3> 초간본 수록 시문의 중간본 내 수록 권차

순번	초간본 권2	중간본
1	思亭賦	권1
2	礎賦	
3	動齋說	권3
4	全州觀風樓記	
5	王師大曹溪宗師…覺眞國師碑銘并序	
6	高麗故輸誠秉義協贊功臣…閔公墓誌銘并序	
7	奇平章奉使錄序	
8	贈羅中正詩序	
9	懶翁和尚語錄跋尾	■(東文選 권102)
10	題金按廉詩卷後	권3
11	都巡問使上禮狀	■
12	國行聖節日賀表 (1)	권2
13	國行聖節日賀表 (2)	
14	節日賀表	
15	癸巳(1353)十月廿五日賀皇太子封册牋	
16	上皇后殿謝功臣號牋	■
17	辭雞林表	권2
18	不允批省所上牋具悉	■
19	雞林赴任後再辭表	권2
20	大明謝恩表	■
21	辭政堂表	권2
22	愛惡箴并序	
23	閔及菴祭文夫人人	권3
24	金敬直宰臣祭夫人文	
25	金提學薦妻七七疏	■(東文選 권111)

4.2 본문 글자 대조

초간본 수록 시문을 중간본 및 『동문선』에 수록된 작품과 글자 대조 결과 대개 글자의 출입과 異體字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초간본의 7장 뒷면 일부가 유실되어 본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動齋說」·「懶翁和尚

語錄跋尾」·「國行聖節日賀表」2편·「節日賀表」·「癸巳十月廿五日賀皇太子封冊箋」의 글은 중간본과 『동문선』에 수록된 내용보다 자세하다. 그 가운데 초간본의 「國行聖節日賀表(1)」은 중간본에서 「賀節日起居表」와 「賀皇太子誕降表」로 내용이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었다. 다음은 초간본과 중간본의 수록 내용의 비교(<표 4>)와 글자대조(<표 5>)를 한 것으로 글자대조는 그 결과에 대하여 예를 들어놓은 것이다.²²⁾

<표 4> 『제정집』 수록내용 비교

순번	판본	제목	내용
1	초간본	動齋說	動也者…或曰命之矣 ‘至正十年庚寅春二月庚寅雞林後學李 書于所居之樂吾堂’
	중간본/ 동문선		動也者…或曰命之矣
2	초간본	懶翁和尚 語錄 跋尾	右王師普濟尊者…宜此錄刊行警世 ‘強圉大荒落夏孟句季有日 稽首再拜謹跋’
	동문선		右王師普濟尊者…宜此錄刊行警世
	懶翁和尚 語錄 (序: 1379) 규장각	懶翁和尚 語錄跋	右王師普濟尊者…宜此錄刊行警世 ‘強圉大荒落夏孟句季有日 瑞誠補理翊贊功臣重匡鷄林君 李達衷 稽首再拜謹跋’
3	초간본	國行聖節 日賀表(1)	嘗荷仁恩…想瞻/黼蔽於重霄云云 一人有慶載廻彌月之辰/ 萬國來庭共獻齊天之壽 緝儀肅穆佳氣沖/融云云 智燭幾微 仁推惻隱道以德齊以禮/盛化難名綏斯來動斯和殊方咸服 爰值虹/流之旦益膺川[圭]-之休云云 濱海守封瞻天/戀闕雖 違玉色已幾乎十年頌祝丹心/奚止於億載 ‘云云乾坤發育雨露無[稽]山海高深/涓埃有助云云 名般求夥製造非工獻芹自/笑其愚鍊石竊希所補’
	중간본	賀節日起居表 賀皇太子 誕降表	嘗荷仁恩…想瞻黼蔽於重霄 一人有慶 載廻彌月之辰 萬國來庭 共獻齊天之壽 緝儀 肅穆 佳氣沖融云云 智燭幾微 仁推惻隱 道以德齊 以禮 盛化難名 綏斯來動斯和 殊方咸服 爰值虹流之朝益膺川 至之休云云 濱海守封 瞻天戀闕 離違玉色 已幾乎十年 頌祝丹心 奚止於億載

22) 전체 결과는 [부록 2] 참고.

순번	관본	제목	내용
4	초간본	國行聖節 日賀表(2)	慶賜遂行…奚止海籌之盈屋 ‘云/云卑而事尊日忠而已大則字小其理則然/所獻雖微或 矜以恤云云產由鄙遠制亦鹿/疎未敢爲內帑之儲庶幾表 中心之懇’
	중간본/ 동문선	賀節日表	慶賜遂行…奚止海籌之盈屋
5	초간본	節日賀表	四月維夏…但常祝於康寧 ‘云云乾/坤之大無不包容霜露所需各勤職貢云云/ 名般至小制造非工庶幾表此下情豈敢登/於內帑’
	중간본/ 동문선	賀節日表	四月維夏…但常祝於康寧
6	초간본	癸巳 十月廿五日 賀皇太子 封册箋	正位居仁…宗支益固云云 ‘稟資純粹處事剛明/厚澤旁霑群情係乎主器英謨深造 重事宜/其擅權雖兆民慶賴之悉均予小子賀悰之/ 彌篤云云’ 頃叨宿衛 優荷寵榮 守職東方 喜先親重輪之日 馳心北極 庶幾裨肯構之基
	중간본	賀皇太子 封册箋	正位居仁…宗支益固云云 頃叨宿衛 優荷寵榮 守職東方 喜 先親重輪之日 馳心北極 庶幾裨肯構之基
	동문선	賀表	正位居仁…宗支益固云云 ‘稟資純粹 處事剛明 厚澤旁霑 群情係乎主器 英謨 深造 重事宜其擅權 雖兆民 慶賴之悉均 予小子賀 悰之彌篤 云云’ 頃叨宿衛 優荷寵榮 守職東邦 喜先親重輪之日 馳心北極 庶幾裨肯構之基

<표 5> 『제정집』 글자대조 결과 예

글자 대조 결과	초간본	중간본
① 小字가 大字로 된 경우	1장 앞면 6행 15자 ‘之/意’	之意
	4장 앞면 4행 5자 ‘文/寶’	文寶
	7장 앞면 3행 6자 ‘持/丹’	持丹
	11장 뒷면 6행 7자 ‘然/而’	然而
	32장 앞면 7행 14자 ‘無/內’	無內
② 글자의 부수가 다른 경우	1장 앞면 10행 7자 ‘擘’	擘
③ 글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장 뒷면 3행 10자 ‘奉’	鳳

글자 대조 결과	초간본	중간본
④ 두 글자가 한 글자로 된 경우	6장 앞면 3행 1-2자 '老曰'	耆
⑤ 글자가 도치된 경우	8장 앞면 9행 16-17자 '淒其'	其淒
⑥ 글자에 출입이 있는 경우	4장 앞면 8행 3-4자 '毋諄'	毋諄白公號淡/ 庵諡忠簡
	5장 뒷면 8-9행 '至正十年庚寅春二月庚寅雞林後學 李 書于所居之樂吾堂'	-
	8장 앞면 4행 10-11자 '諄則'	諄之則
	21장 뒷면 3행 1-5자 '聖節日賀表'	賀節日起居表 應製下七首倣此

5. 맺음말

이상 『제정집』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내용과 함께 초간본 『霽亭集』 권2에 대한 형태서지적 분석 및 중간본과의 본문 글자 대조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집』은 이달충의 손자 李寧商에 의하여 春川에서 초간이 되고 나서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간행이 이루어졌다. 먼저 1836년 후손 李璧秀가 태백산 浮石寺에서 중간본을 간행하였고, 이후 후쇄본이 1918년 영주에서 간행이 되었다. 또한 1939년 원주에서 이순영 등이 연활자본으로 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1965년 후손 이재길 등이 석인본을 간행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제정집』 초간본은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고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것이 원주고판화박물관에서 초간본 『제정집』 권2가 발굴됨에 따라 중간본과의 구성 및 본문 글자 대조를 통해 대략적인 변개양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간본 권2에는 모두 25편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9편은 중간본 권1, 2, 3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懶翁和尚語錄跋尾」와 「金提學薦妻七七疏」 2편은 중간본에는 수록되지 않고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후손이 중간본을 간행하면서 불교내용과 관련된 『懶翁和尚語錄跋尾』와 『金提學薦妻七七疏』를 임의로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都巡問使上禮狀』, 『上皇后殿謝功臣號牋』, 『不允批省所上牋具悉』, 『大明謝恩表』 4편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작품으로 추후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조선후기 간행된 중간본의 본문과 글자대조를 한 결과 글자의 출입과 異體字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초간본의 『動齋說』·『懶翁和尚語錄跋尾』·『國行聖節日賀表』 2편·『節日賀表』·『癸巳十月廿五日賀皇太子封冊箋』은 중간본 및 『동문선』의 내용보다 자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霽亭集』. 초간본(원주고관화박물관 소장), 중간본(한국문집총간 3집)
연활자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석인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단행본]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이달충 저, 안세현·안득용·서정화 역, 장희성 교점. 『제정집』.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13.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上-下. 서울: 보경문화사, 1995.
淸州古印刷博物館. 『朝鮮前期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파주: 글항아리, 2014.

[논문]

김영미. “제정(霽亭) 이달충(李達衷) 산문의 서술방식 연구.” 『국어문학』 제51집

(2011. 8). 62-89.

배현숙. “宣祖初 地方 冊板考.”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299-339.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제15호(2009. 6). 229-269.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39집(2001. 12). 365-394.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1)全南地域
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46輯(2010. 9). 159-198.

[부록 1] 초간본 수록 작품

1. 「都巡問使上禮狀」: 20-B-05

- 20-B-06. 誕敷文德咨儒雅以鎮邊導霽仁恩撫軍民/
20-B-07. 而柔遠令嚴事簡化洽威行恭惟云云氣質/
20-B-08. 剛明風儀端淑少潛心於訓誥嘗有意於經/
20-B-09. 綸早捷科名馳驚乎書林藝苑益敦節義歷/
20-B-10. 揚乎諫掖憲官用牛刀則二州之遺愛尙存
21-A-01. 按駱轡則一道之休稱大着竭臣忠於君主/
21-A-02. 揚國美於華夷博覽而夷要宗遠遊而增豪/
21-A-03. 氣任大責重雖居安肯忽其危身修意誠凡/
21-A-04. 處事皆當于理戍卒飽恩而奮勇烏夷慕義/
21-A-05. 而悛心頤指臂使而駿犇踵躡肩磨而來服/
21-A-06. 隅肅穆四境歡忻伏念云云爲世所輕[業]/
21-A-07. 儒而拙故左遷於邊鄙豈上達之梯媒旣拘
21-A-08. 留守之任而不能趨造庭除異枉巡問之行/
21-A-09. 而徒自竚瞻節鉞顧以邑人陞爲邑宰豈予/
21-A-10. 心哉縱非幕賓職系幕僚是吾樂也以同聲/
21-B-01. 氣敢露胸懷/

2. 「上皇后殿謝功臣號牋」: 23-B-05

- 23-B-07. 夙配乾元宜母天下嘗叨充澤俛俟海隅寵/
23-B-08. 獎踰涯戰兢失次云云性資眇末功績隳踈/
23-B-09. 若論先世之勤王庸有可賞自料後昆之奉/
23-B-10. 職略無所裨濫蒙涵育之仁申錫褒崇之號/
24-A-01. 草近淵珠而被潤木因山玉以敷榮云云柔/
24-A-02. 順利貞含弘光大念承緒於舅甥之系矜守/

24-A-03. 封於父母之邦導霽至恩過加異數云云益/

24-A-04. 彈誠懇祈福履於無疆永事朝宗[霽]雲仍而/

24-A-05. 勿怠/

3. 「[霽];下]允批省所上賤具悉」: 26-A-02

26-A-03. 國步安危雖在公卿之獻替民生休戚實關/

26-A-04. 守令之賢愚故知爲理之原莫急分憂之寄/

26-A-05. 卿衣冠貴胄翰墨弘儒通六經諸子之書體/

26-A-06. 三綱五常之道其才堪爲補袞其德足以濟/

26-A-07. 時曰篤不忘將以大用使之歷揚臺閣豈無/

26-A-08. 意焉偶爾退休田園是亦命也思欲支[傾]於/

26-A-09. 大廈遂令拜寵於中樞惟我邦之東都迺羅/

26-A-10. [王]之古國謂非賢者難以[霽;蒞]之釋其調鼎之勞/

4. 「大明謝恩表」: 29-B-03

29-B-04. 受命自天廓示函弘之量視民如子旁推拯/

29-B-05. 濟之仁星拱北辰山呼萬歲云云柔遠能邇/

29-B-06. 厚往薄來有得于中蕩蕩乎盛德大業貽謀/

29-B-07. 厥後振振兮愉色婉容無疆惟休自今以始/

29-B-08. 云云邈居番職徒仰耿光近陳寡德之卑悚/

29-B-09. 佯遣陪臣而上聞曲從敷奏優錫恩榮航海/

29-B-10. 言還適遇風濤而阻滯被天之祐欣瞻日月/

30-A-01. 以蘇城賜賚綢繆哀矜篤厚感之至矣言可/








30-A-02. 殫哉云云顧畏民岳恪勤候度庶不累雖高/















30-A-03. 聽卑之德而無忘以小事大之儀

[부록 2] 글자 대조 결과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1A	2		「思亭賦」	「思亭賦」見東/文選
	6	15	之/意	之意
	10	7	喟	喟
1B	3	10	奉	鳳
2B	4	6	撫	撫
	7		「礎賦」	「礎賦」見選/賦
3A	7	4	又	支
3B	1	11	匪	非
4A	4	5	文/寶	文寶
	4	8	說	說
	8	3-4	毋諂	毋諂白公號淡/庵諡忠簡
	9	6	悔	晦
5A	3	16	歎	歎
5B	8	6-17	至正十年庚寅春二月庚寅雞	■
	9	1-13	林後學李 書于所居之樂吾堂	■
6A	3	1	老	耆
		2	曰	
	4	3	部	府
	9	1	駿	越
6B	5	11-12	何如	如何
7A	3	6	持/丹	持丹
	4	1	也	■
7B	1-4	-	■	緩死蠱之振民育德巽之申命行事皆有所觀君子以之故案部者謂之觀風其爲任重也乎抑亦大塊之噫萬竅之號有萬不同木之斯拔禾或盡起者有所感也薰而解民
			[而]	而
	5	3	口	歎
	5	4	■	棘心者有所養也或條不鳴草
	5	5-17	■	不可不觀
	6	14-17	■	以
7	3	以	■	
7	15-17	[周方方]	周旋施	





초간본 『齋亭集』의 서지적 분석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8A	2	2	于	乎
	2	5	知	■
	2	7-8	言之	之言
	4	10-11	請則	請之則
	7	1-2	言然	言則然
	9	14		涼
	9	16-17	 其	其淒
8B	1	1	王	高麗王
	3	1	眞	直
	5	17	聞	問
	10	6		古
9A	1	9	圖	屠
	5	5-6	信崇	崇信
9B	2	5	召	炤
	3	12	時	是
	6	3	勵	礪
	6	8	睥	旰
	7	3		于
10A	8	5-6	二年	■
	9	17	承	丞
	10	15		赫
10B	1	6	圖	屠
	2	1	嘗	常
	3	2		泊
	8	15	已	■
11A	3	11	又	有
11B	6	7	然/而	然而
12A	1	6	昏	腎
	1	16-17	就之	■
	2	1-5	溫然如父母	■
	8	16	幸	■
	9	16	以	而
12B	3	9		忘
	9	13-14	以謂	以爲謂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13A	3	17	再至	至再
	4	1		
	9	12	護	將
14A	2	15	譔	撰
	4	14		中
14B	1	11		藝
	2	12		中
	4	8	譔	撰
15A	4	3	卒	猝
	5	13		奕
	8	5	齊	齋
	10	9		以
	10	13-16		娛坦蕩蕩
15B	1	16	不	公
	2	4		遇
	5	2	一	二
	5	13	料	科
	6	3	注	主
	6	11		院
	7	16	笄	笄
	8	9	月	■
	8	13		于
	10	15		于
16A	3	12	言乎	之戲
	3	16	言乎	戲
	4	8		兮
	5	6		錄
	6	9	一	工
	6	17	則	■
16B	1	7		其
	4	4		昵

초간본 『齋亭集』의 서지적 분석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17A	1	2	驕	嬌
	7	15		眩
17B	5	2		儼
	7	1	臺	儼
	8	1	糜	靡
18A	1	8		之
	2	10	志	知
	7	15	旦	朝
18B	3	12	勵	礪
	8		「懶翁和尚語錄跋尾」	■
19B	6	2		修
	8	13-17	強圍大荒落	■
	9	1-12	夏孟句季有日 稽首再拜謹跋	■
	10	7-10	後	後跋惕若/齋
20A	6	4	勵	礪
	6	15	錯	措
	10	8-9	雄豪	豪雄
	10	13		括
20B	4	5	塞	塞
	5		「都巡問使上禮狀」	■
21B	2	1-2	國行	■
	3	1-5	聖節日賀表	賀節日起居表 應製下七首做此
	5	5-6	霄云	霄而下 闕
22A	4	1-2	國行	■
	5	1-5	聖節日賀表	賀節日表
	10	12	旦	朝
22B	2-5	17-15	云/云卑而事尊曰忠而已大則字小其理則然/所獻雖微或矜以恤云云產由鄙遠制亦鹿/跡未敢爲內帑之儲庶幾表中心之懇	■
	10	5	吉	象
	10	11	置	值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22B	10	15	旦	朝
23A	1	11		多
	2	10		瞻
	2	11		天
	3-6	15-3	云云乾/坤之大無不包容霜露所需各勤職貢云云/名般至小制造非工庶幾表此下情豈敢登/於內帑	■
	7	1-7	癸巳十月廿五日	■
	10	10-17	稟資純粹處事剛明	■
23B	1-3	1-4	厚澤旁霑群情係乎主器英謨深造重事[宜]/其擅權雖兆民慶賴之悉均予小子賀棕之/弥篤云云	■
	5-6		「上皇后殿謝功臣號牋」	■
24A	9	3		例
24B	1	10		喘
	2	10		不
	2	14		者
	2	16		乖
	3	10		于
	4	6	黷	瀆
	7	6		綸
	7	15		仕
	9	6		左
25A	6	12	鰥	瘵
25B	6	12	鰥	瘵
	2	9	閣	閣
	3	1	制	製
	5	14	以	有
	6	1	偃	契
	8	2	遶	遞

초간본 『齋亭集』의 서지적 분석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25B	9	3		桑
	9	14	佛	鬼
26A	2		「不允批省所上棧具悉」	■
26B	10	17		籟
27B	2	10	卷	券
	8	2		始
	10	17		不
28A	2	16		所
	7	8	已	以
28B	10	10		桑
29A	1	7		半
	3	2	召	昭
	8	15	遶	遞
29B	3		「大明謝恩表」	■
30A	6	8	逢	■
	8	11	蒙	夢
	10	14		竊
30B	2	5	惊	踪
	3	1		叡
	4	8	吹	猷
	4	12	代	載
	6	1		桑
	6	4-5	晚景	景晚
31A	1	11		有
	1	13		愚
	2	1		陸
	2	3		赫
	2	12		之

장	행	자	글자 대조	
			초간본(10행 17자)	중간본(10행 20자)
31A	3	11	致	治
	4	15	防	妨
	5	4	遑	遞
	7	8		竭
	9	3		子
32A	7	14	無/內	無內
	9	8		茫
32B	1	7		公
	4	17		冀
	5	1	枉	在
	6	9	文	文官侍中/號息齋
	10		「金提學薦妻七七疏」	■